무크·평생교육·나노학위 미래의 교육은

전문가칼럼 - 무크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IT디자인융합학부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부르던 이 낯익은 동요 속에는 아날로그 시대 교육의 운영 원리가 놀라울 만큼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모든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에(학교종이 땡땡땡), 정해진 장소에 집합하여(어서 모이자), 지정된 교사로부터(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수업을 받는다. 아날로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학교 풍경이 아니던가. 이것은 근대 산업화로 형성된 공장의 운영 원리가 그대로 교육 현장에 이식된 결과이다. 정해진 출근 시간까지 정해진 작업장에 집합하여 하달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장 노동자의 모습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은 그리 다르지 않다. 즉 학교란 자라나는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미래의 예비 노동자들에게 근대 공장에서 요구하는 제반 규율을 선행 학습시키는 공간이기도 했다.

“정보화 시대 대학 졸업장 유효성 점검해봐야”

그런데 정보 사회의 도래로 오랜 아날로그식 교육은 변화에 직면했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 교육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더 이상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게다가 온라인 환경은 교육의 개방성마저 촉진시켰다. 지금껏 굳게 문을 닫아걸고 까다롭게 선발한 소속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제공해왔던 대학이 이제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외부의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한 교육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를 지칭하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그것이다. 무크는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계 명문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교육 환경이다.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유다시티(Udacity)’ 등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무크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K무크를 비롯해 일본의 J무크, 중국의 쉐탕엑스(XuetangX) 등 국가 단위의 무크도 점점 늘고 있다.

무크의 등장은 급속한 사회 변화와 관련이 깊다.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비용은 점점 높아지는데 정작 대학 졸업장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학 졸업장이 좋은 직업과 안정된 직장을 보장해주던 시절은 끝났다. 취업 기회는 날로 좁아지고 설령 취업을 해도 그 곳이 평생직장이 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의 유효 기간도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며 우리의 교육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전 세계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된다. 과학기술,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현존하는 직업들 중 상당수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시대, 새로운 교육영역 인정받게 될것”

옥스퍼드대학 칼 베네딕트 프레이(Carl Benedikt Frey)와 마이클 오스본(Michael A. Osborne) 교수 연구팀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20년 이내 현재 직업의 47%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MIT대학 에릭 브린욜프슨(Erik Brynjolfsson)와 앤드류 맥아피(Andrew McAfee) 교수도 ≪제2의 기계 시대≫란 책을 통해 “인간보다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난 인공지능이 출현한다면 단순 직종보다는 고도의 지식 노동이 사라질 위험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계에는 기자를 대신해 스포츠 경기 결과나 주식 시장 동향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저널리즘이 도입되었다. 회계사, 변호사, 약사의 업무도 점차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진단은 ‘얼마 못가 사라질 직업을 위해 굳이 값비싼 등록금을 부담하며 대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라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 직업의 종말과 새로운 직업의 탄생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값 비싼 대학 교육보다는 무료로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찾아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 훨씬 더 유용할 것이다. 무크는 바로 이렇게 직업과 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 등장한 새로운 대안이다.

실제로 무크는 구글, MS 등 세계적 기업들과 손잡고 단기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나노 학위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당연히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채용의 기회가 제공된다.

기존 대학들 중에도 무크에 개설된 과목들을 정규 수업에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점점 늘고 있다. 이제 학력이나 학벌보다도 무크에서의 교육 경력이 인정받는 새로운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참여마당

최우승
(지리학 2010)

이번 봄, 모두 연애를 해보자

웬만큼 마음에 드는 이성이 아니고서는 만남을 위해 굳이 집밖으로 나가기 싫었던 계절이 지나고,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찾아오는 사랑을 하고 싶은 설렘의 계절이 왔다. 이상하게도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연애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는가.

이런 기분에 매년 올해엔 연애를 해보겠노라 다짐을 해보지만, 결과는 역시나 꽝이다. 그리곤 그 충격에 나는 외모가 별로다, 매력이 없다며 낙담하는데 그 와중에 설마 얘가 연애를 할까싶었던 주위의 인물들마저 연애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노라면 모종의 답답함이 차오른다.

연애 고수들의 특급 연애비법을 수많이 탐독하고 연애 노하우가 담겼다는 책도 몇 권이나 읽으며 따라해 보아도, 연애 그거 잘 안되더라. 수많은 청춘이 비슷한 경험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연애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꼭 ‘이끌림’이 있어야만 연락과 만남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이란 저마다 너무나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기에, ‘내가 생각하는 몇 몇 카테고리’로 묶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노릇이다. 이러한데 왜 꼭 ‘처음부터 끌리는 사람’만 찾는가. 결론은, 일단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만나다보면 내가 만나는 사람의 매력을 조금씩 발견할 수 있다.

여자들은 살아오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자신의 매력이 무엇인지 들으면서도 자신이 솔로인 이유를 계속 외모 탓으로 돌린다. 비록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지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나의 매력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만나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분명히 당신의 매력을 느끼고는 이끌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느긋한 자세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곧 능력이다. 호감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보통 상대방에 대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적극성이 연출되기 쉽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그걸 받아줄 준비가 안 되어있다. 그렇기에, 절대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설령 내 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들 상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들 하지만 무작정 찍어대기만 하면 그냥 도끼만 망가질 뿐이다.

물론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든 과정이다. 하지만 인내가 필요하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 까지 계속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기한은 내가 힘들어 지칠 때까지다. 자연히 사랑이 식게 되는 시점이다. 누군가는 일주일, 누군가는 한 달 또는 일 년 넘게 기다릴 수도 있다. 이 기한을 넘겨서 억지로 참으며 만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온전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 된다. 기다림에 지쳐 이미 내 자존감은 나락까지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견디기 힘들면 그만 두는 게 나를 위하고 상대방을 위한 길인 것이다. 사랑도 결국 서로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니 말이다.

자, 이번 봄에는 우리 모두 연애를 해보자. 아니, 진짜 사랑을 한 번 진하게 해보자.

▶1면에서 이어짐

정언명령에서 행위의 필연성은 단지 행위의 준칙이 지닌 보편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형이상학 정초』라는 책에서 칸트는 정언명령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네가 그것을 동시에 보편적 법칙으로 의욕할 수 있는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거짓 약속을 하지 마라’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와 같은 것이 정언명령의 예다.

정언명령은 칸트 윤리학의 핵심 개념이다. 즉,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는 정언명령에 따른 행위다. 칸트는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한 것은 선의지(善意志)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때 선의지란 정언명령을 따르는 사람의 의지를 말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다. 선의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칸트가 인간의 삶에서 행복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 실제로 영국의 공리주의 윤리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에서 『도덕형이상학 정초』에 나타난 칸트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한편, 제러미 벤담의 행복주의를 옹호한다.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칙 서설』이라는 책에서 유용성을 가진 행위, 즉 개인이나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칸트는 다음 세상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보상(행복)이 주어지리라고 보았다

그런데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벤담이나 밀의 행위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윤리학은 도덕성의 기초를 가언명령에서 찾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칸트는 도덕성의 참된 기초를 정언명령에서 발견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행복에 대한 인간의 관심에 대해 무지했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목도하고 있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인은 불행하고 악인이 오히려 복을 누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칸트는 이 세상에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세계, 즉 다음 세상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정확히 비례하는 보상(행복)이 주어지리라고 보았다. “단순히 행복해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행복할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라!”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칸트의 대답이다.